



# 戒의 그릇이 튼튼해야 가정이 행복

선지식음  
찾아서

굳은 의지로 지리산 도솔암 토굴에서 혼자서 결제를 하여 여름을 난 적도 있다. 밥 해 먹는 시간이 아까워 생활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지열하게 수행을 하였다. 그러다 종단의 소임을 맡아 일을 하게 되었고 선방에 앉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참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래서 말은 소임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선방에 방부를 들이기로 하였다. 수행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행자의 참 뜻을 아껴서서 안 된다고 하였다. 서울 푸른 수행자의 기개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요, 수행자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절제를 하여 지해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계율을 잘 지킨다면 자신의 수행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종단의 호법선장답게 스님은 가정의 행복까지도 계율에서 찾았다. 스님은 영무새처럼 입으로만 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몸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행의 방편으로 특유의 붓글씨를 쓰시는 스님은 평소 애송하는 문구를 하나 써주셨다. 심여벽해능객물 인사청련불염진心如碧海能容物人似清蓮不染塵, 마음은 푸른 바

다처럼 모든 것을 용납하되 스스로는 연꽃처럼 티끌에도 더럽혀지지 말라.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되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경구이다.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였으니 청복을 누린 날이다. 오계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오늘 생각지도 않게 계를 받았다. 수계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들이 외호하고 있었지만 또한 열화십의 난초(蘭草)들이 내 수계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난향으로 팔목에 연비를 하였다고나 할까.

글·사건·문운정(수필가·본지는설위원)

## “영원한 것 아님을 인식하면 집착 줄어들어” 오계는 모든 사람 이익 위해 지켜야할 덕목



월서 스님은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0년 법주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 1972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동화사 금강선원, 해인선원, 봉암선원, 김인선원, 제주여주선원에서 수선인가를 성취. 경주 분황사, 경주 불국사, 조계사 주지 역임. 제 4~12대 중앙 총회의원 역임. 현재는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이며, 원로회의 원로위원이다.

### 월서 스님 (봉곡사 주지)

**정**릉 골짜기에 위치한 봉곡사를 찾았다. 수백 년은 되었을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월서 스님의 거처인 열화십 위로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열화십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난향과 목향이 코 끝에 와 닿는다. 은은한 난향과 목향으로 고향이라든 듯 마음이 안온해진다.

월서 스님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단의 사법기구인 호계원에서 12년을 보냈다. 호계원장 소임을 두 번이나 맡아 그 누구보다도 수승하게 해 내었기에 사람들은 월서 스님을 가리켜 종단의 호법선장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스님은 호계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특별법으로 멸빈자까지도 모두 다 풀어 주었기에 참으로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월서 스님은 나이 원이 넘으면서 제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 후로 스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노

릇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무리 집착을 해 봐도 결국은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욕심도 줄어들고 화도 덜 내게 되더군요. 부귀와 명예와 수복(壽福)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하며 사는 것이 평생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렇게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훔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어떤 행복인가? 또 죽음을 앞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려우니까 죽을 자제도 두려운 것이지요. 불교의 참선은 다른 공부와 달리 죽음을 준비하는 공부입니다.”

무섭기로 유명한 금오산사의 상좌인 월서 스님은 수행자로서 살아갈 덕목을 이미 행자생활을 하면서 터득하였다. “금오 스

님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풀을 못 보겠지요. 나무를 하든가 청소를 하든가 정진을 하든가 무엇이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금오 스님의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 있어요.”

금오 스님은 강원에서 공부하기 보다는 참선공부하기를 원했기에 월서 스님은 그 뜻을 받들어 선방생활도 하고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화사에서 결 제했을 때입니다. 반결제날 ‘정진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용맹정진을 하다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해서 주지인 월산 스님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방구들을 파헤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용맹정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체적인 조복은 받았지요. 그 다음부터 참선 공부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 후에도 월서 스님은 결판을 내겠다는

###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자, 음미반배음죽자 등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영자 (23x35 x 50cm), 연꽃자 (26 x 26cm), 죽자 (60 x 20cm)

소형금병풍 규격: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달마영자, 연꽃자, 음미반배음죽자 등은 스님 및 가정에 개인 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순금경전규격 (소)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품(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을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x16x16cm 155,000원 (소)20x12x12cm 95,000원)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민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아름답고 무늬가 푸른색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중에 뜬 크기와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x16x16cm 155,000원 (소)20x12x12cm 95,000원)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민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1500°C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기와 93%의 원적의선, 높은음음이 발산하며 98%의 삼각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죽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 마염주입니다. 진법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안개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1500°C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기와 93%의 원적의선, 높은음음이 발산하며 98%의 삼각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주는 품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정보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향 문의전화 02)722-1850